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송희*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한 UPM 대학이며 어학원은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 클락 공항에서 1시간 떨어진 수빅이라는 지역에 위치한다. 어학원은 5층 건물로 한 건물 안에 기숙사와 수업을 듣는 교실이 같이 있으며 식당은 건물과 분리되어 일층에 위치해 있다. 와이파이를 건물외 복도와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만 잡힌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가와 떨어진 산 속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다.
수업	학원에 도착하면 레벨 테스트를 본다. 레벨 테스트는 토익과 비슷하며 리스닝, 리딩, 단어, 문법, 작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대일로 스피킹 테스트까지 본다. 시험 결과를 가지고 반을 나누게 되고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교시로 이루어져있다. 8교시 중 3시간은 1:1 수업이며 나머지는 그룹수업으로 진행된다. 그룹수업은 문법수업과 이력서 면접 준비 수업, 멀티미디어, 임팩트 이슈, 리스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1:1 수업은 하나의 주제와 지문을 읽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 하거나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며 대화에 쓰이는 말도 배운다. 선생님과 이야기 할 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모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단어 공부 또한 중요하다. 숙제의 양은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여덟 명의 선생님이 다 내주신다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작문이나 단어 뜻 찾아오기, 지문에 대한 문제풀기 등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Activity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며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단체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는 자유다. 단체로 한 활동으로는 요트투어와 카마얀 비치이며 활동 시 선글라스와 모자 선크림은 필수다. 요트투어는 차비, 4시간 요트비, 식비 등을 모아 대략 1000페소의 비용이 들었다. 카마얀 비치는 입장료, 차비와 짐을 놓는 오두막으로 500페소의 비용이 들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의 7월은 장마철이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또한 태풍 때문에 주말 액티비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비가 하루 종일 오지만 평소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이다. 날씨는 한국 여름과 같이 덥지만 실내는 에어컨으로 춥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 가면 좋을 것이다.
안전	가게를 들어갈 때 마다 가드들이 가방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버포인트나 큰 건물 안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SBMA 수박경제특구를 벗어난 울릉가포는 낮에는 많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SBMA 안에서는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혼자서 다니는 것은 자제해야한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숙소는 학원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 교실과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3인 1실이며 침대 3개와 냉장고, 넓은 책상 하나와 독서실 책상과 같은 작은 책상, 3개의 옷장이 있다. 옷장 안에는 옷 서랍이 하나씩 들어 있으며 옷걸이는 따로 없어 챙겨오는 것이 좋다. 가끔가다 도마뱀이 들어오거나 벌레가 있을 경우도 있어 벌레약을 챙겨오는 것도 좋으며 방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개미가 급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1층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밤 10시에 점호를 하며 다음날 수업이 없을 시에는 새벽 2시까지가 통금시간이다.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가드 분에게 강의실의 문을 열어 달라 부탁해야한다.
식사	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아침, 점심, 저녁 세끼가 한식으로 제공된다. 아침은 하루는 빵과 스프, 샐러드 다음날은 한식으로 나온다. 처음 밥을 먹었을 때에는 쌀에서 냄새가 나 잘 먹지 못했지만 점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된다. 소스 같은 경우도 한국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먹는 한식과는 많은 차이는 없다. 밖에 나가 직접 사먹을 수도 있는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싼 곳도 많지만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곳도 많다. 학원에 전자레인지가 있어 마트에서 사와서 먹을 수도 있다.
교통	학원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으로는 택시와 FB가 있다. 택시는 학원에서 전화를 하면 학원 앞까지 오고 하버포인트까지 200페소가 든다. FB는 버스와 같은데 정확한 시간대는 없지만 학원 앞을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13페소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에서 학원으로 올 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하버포인트 앞에서 타면 150페소 미니스톱 앞에서 타면 120페소의 비용이 든다. 5명의 인원이 초과되면 한 사람당 20페소의 돈을 추가로 내야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20,000	
식비	140,000	
Activity	80,000	
기념품	160,000	
합계	4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영어는 단어와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오면 좋습니다. 환전은 300~400달러로 한국에서 하신 후 필리핀에서 페소로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ATM기기에서 돈을 뽑아 쓸 수 있지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날씨가 덥고 쉽게 타기 때문에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에서는 의미 있는 선물을 찾기 힘들고 한국 물건은 한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빨래를 세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나 수건은 많이 챙겨 오지 않아도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실력이 엄청 올랐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생각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도, 특히 회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법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더욱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만 가지고 겨우 겨우 이야기하다가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듣다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게 되고 계속 눈과 귀에 익는 단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는 들어본 문장들을 사용해보고 적용하였습니다. 1:1 수업에서는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만이 아닌 한국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 보니 인생 상담까지 진중한 이야기까지 나누며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말하기는 나의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영어공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야트 투어 단체사진(With 타이완친구들~)</p>	<p>뿌듯했던 고아원 봉사활동~</p>
	
<p>불끈불끈 카마얀 비치^^</p>	<p>FB!</p>
	
<p>분위기 좋은 무도회장 겸 술집~</p>	<p>행운의 필리핀 강아지><</p>